

유일한 기독교 1: 그리스도의 배타성

성경말씀: 마7:13-14

도입

성경의 구성: 구약과 신약

구약: 창조, 사람의 타락, 죄, 노아의 홍수, 민족들의 형성, 이스라엘

신약: 복음서와 서신서 그리고 계시

복음서에서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언행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

서신서에서는 구체적으로 그것들이 교리로 정립되어 있다(구원, 성화).

마5-7: 산상수훈의 말씀,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왕국을 받을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
7장은 판단에 대한 것이며 특히 13, 14절은 우리 자신을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준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진리를 발견함으로써 기독교의 핵심을 알게 된다.

두 개의 길

13-14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문을 통해 들어가 길을 걷는다.

넓은 문과 넓은 길이 있고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있다.

고대 도시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였다. 성벽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들락날락하는 큰
길의 넓은 문이 있고 소수의 사람들이 사적으로 들락날락하는 좁은 길의 좁은 문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과 문이 있고 소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과 문이 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모든 길이 다 궁극적으로 끝에 가면 같은 목표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테레사 수녀의 말: 그럴듯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두 길만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

이거나 저거나 다 믿음을 기반으로 한 종교 시스템이다.

창조와 진화: 둘 다 믿음 체계이다.

여러 길이라고 하는 것과 두 길만이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직 두 길만이 있음을 믿는다. ★★★

이 두 길은 방향이 정반대이고 크기와 목적지가 다르다: 하나는 멸망으로,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한다.

동시에 두 길에 있는 사람은 없다. 오직 한 길에만 있을 수 있다.

큰 길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자연히 본성적으로 취하는 길이다.

1.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악보다 선이 많으면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된다.

2. 예수, 부처, 마호메트, 마리아 등 누구를 믿어도 결국 끝에 가면 동일한 천국에 이른다.

3. 우리 속에 신이 존재하므로 영적인 훈련을 통해 그것을 개발하면 신이 될 수 있다(창3:3-5).

4.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믿음과 더불어 행위가 있어야만 한다고 믿는 자들도 있다.

사도행전 15장: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할례: 율법 준수를 뜻함.

많은 한국 교회의 문제: 갈5:11

가인의 길(유11): 처음으로 종교라는 큰 길을 만든 장본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상상에 따라 나아옴

발람의 잘못(유11), 발람의 교리(계2:14):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것, 음행에 빠뜨리는 것

좁은 길

하늘의 빛을 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이 찾는 길

우리말: 자연스럽게 한다. 다른 나라 말: 배우려면 애를 써야 한다.

좁은 길: 어려운 길이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것은 어느 면에서 쉬운 일이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고 왕따를 당하며 대부분의 사람이 가는 길을 접어두고 좁은
길로 들어와 성화의 과정을 겪는 것은 쉽지 않다. ★★★ 대학 입학(술 담배)

노력과 생각과 부지런함이 있어야 이 길로 들어설 수 있다(눅13:23-24).

진리 탐구에 대한 의지와 결단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모세(히11:24-27):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하면서 견디어 냈다.

마르틴 루터: 중세 암흑시대, 카톨릭 교회의 전성기, 믿음에서 우리와 다른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예수님 이후 지난 2000년 동안의 역사에서 가장 큰 일: 종교 개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모든 사람과 배치되는 행동, 아무도 하지 않을 때 목숨을 걸었다.

성화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히6:1-3): 노력과 아픔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그냥 다 알아서 해 주는 일은 없다.

좁은 길로 들어서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것이요,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

좁은 길: 예수님의 길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온 우주에서 가장 좁은 문으로 들어가 가장 좁은 길을 가신 분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늘 왕좌를 떠나 죄로 가득한 세상에 내려오셨다.

베들레헴의 마구간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다.

공생애가 시작되자마자 마귀의 공격을 받았다.

종교 지도자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정치 지도자들의 비난을 받았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참하게 죽는 형틀인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셨다.

겻세마네와 갈보리에서 지옥의 맛을 보셨다.

친히 사망의 고통의 맛을 보셨다.

가장 위대한 분, 무한대로 크신 분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가장 좁은 길로 들어 서셨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배타적 진리들

1.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요14:6; 행4:12; 갈1:8-9).

2. 다른 종교는 생명을 주는 말씀이 없다. 우리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성경이 있다.

3. 다른 종교로는 사망을 극복할 수 없다. 윤회나 사라져 없어진다는 것은 마귀의 거짓말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영원히 거한다.

4.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

5. 다른 종교에는 휴거의 소망이 없다.

6. 다른 종교로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다다를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

7. 다른 종교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요, 하나님만 진실하시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는다.

기독교의 핵심은 신학적 배타성: 지역, 가문, 학력, 소유, 나이, 성별, 인종, 국가는 무상관

생명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요3:36)

구원받기 전의 사도 바울: 학식이 많은 사람, 열심 있는 사람, 자기 길이 옳다고 믿고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 그러나 변화된 이후: 빌3:7-9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분만 알기로 걱정함(고전2:1-2).

갈6:14: 세상이 무어라 말하든 나는 좁은 길을 택한다.

결론

당신은 태어난 대로 본성에 따라 큰 길로 걷는가? 아니면 두 번 태어나서 좁은 길로 걷는가?

당신은 기독교의 핵심인 신학적인 배타성을 알고 믿는가?

하나님, 성경, 예수 그리스도, 구원, 부활, 휴거, 천국과 지옥. 영원한 생명을 믿는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어려움을 견뎌내며 좁은 길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가?

특히 아이들과 청년들

신30:19, 내가 이 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나와 네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